금수강산
10
주체113(2024)
루계 제422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4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10월호

제422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우승

꼴롬비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기쁨에 넘쳐있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편집: 김광수, 서철남, 최은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인민이 부여한 중책에 항시 헌신으로 보답하고저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있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번영에로의 줄기찬 창조투쟁에 순결무구하고 진함없는 애국충의심과 견인불발의 노력을 바쳐가는 소중한 자부심을 안고 국경절을 긍지높이, 떳떳하게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들과 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에서 변함을 모르는 총련의 애국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정의의 위업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있는 친선적인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국가의 창건과 강화발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와 위훈을 바치고 후세토록 본받을 훌륭한 전통과 모범을 창조한 전세대의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 공로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 어디서나 변함없이, 더욱 찬연하게 나붓기는 우리의 국기를 긍지높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해마다 국경절을 맞이할 때에도 자연히 절감하군 하는것이지만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습니다.

악독한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물론이고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제국주의련합무력의 침략을 물리칠 때에도 조선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창조되였으며 페허우에서 사회주의국가에로 비약하던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력사적 행로에도 언제나 기적이 충만되여있었습니다.

더욱 자부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이같은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전세대가 걸어온 과거의 력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계속 전진하고있습니다.

옹근 한세대가 바뀐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도전과 시련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추호의 동요나 탈선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킨것은 **김일성**주의위업에 대한 가장 충직하고 완벽한 계승이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실체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명력, 생활력의 영원불멸성을 실천으로 립증한 거대한 정치적승리로, 력사적기적으로 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혁명대오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도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사회주의는 절대로 좌절되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며 영원히 승승발전한다는 주체의 진리, 백승의 철리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위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거창하고도 거폭적인 대업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하고 포치한 5개년계획의 네번째 해의 투쟁과업을 실천하고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투쟁령역에 지방진흥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더 부가해 떠멘것은 우리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심의 표현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려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관점과 자세인 동시에 인민에 대한 철저한 복무정신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혁명위업의 전진도상에서 이러한 도전적인 고비, 력사적단계를 승산있게 과감히 딛고

넘을 확고한 자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내린 이같은 혁명적결정은 전국인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사회주의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발양시켜 우리 제도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국가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결단으로 됩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순탄하지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에서 앞으로 10년안에 전국의 시, 군들에 다각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준다는것은 이전시기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당과 정부는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군대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과 강한 전투력을 믿고 과학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실천계획을 세웠으며 20개 시, 군들에서는 주요지방공업공장들의 실체가 예상했던 그대로 뚜렷해지고있습니다.

이에 만족함이 없이 당과 정부는 지방의 락후성을 최대한 더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 추가적인 구상을 발기하고 철저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간주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70여년,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지방발전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립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우리의 지방발전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멀지 않아 10년후에 우리는 오늘의 이 물음에 현실적변혁으로써 대답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히 난관과 애로가 겹치는 속에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추이를 견지하고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월별, 분기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면서 올해에 달성해야 할 정비보강목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있는것도 우리가 쟁취하고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는 경공업과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안정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들을 얻어낼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있으며 농사작황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으며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자연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 7월말에 압록강하류의 평북도지역과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력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이 과정에 당과 정부가 자연재해대응에서의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세밀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게 된것은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력의 급진적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 커다란 획기적결과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특히 불과 몇달어간에 우리는 국방연구와 생산에서 중요성과들을 획득함으로써 경이적인 군사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든 국가사업의 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작전하며 추가로 제시한 중요정책적과업들이 기본적으로 승세를 타고 옳게, 만족스럽게 진척되고있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남은 몇달어간에 시간을 최대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올해의 투쟁성과를 더욱 풍부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긴장한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더욱 승화시키고 확대시켜 성공적인 결실에로 이끌어가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앞에 나서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혁명임무입니다.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올해 경제사업결속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2개 중요고지를 담당한 인민경제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부과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데 현재의 투쟁분위기와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고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숙한 작전과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부문전반에서 현존설비들에 대한 정상적인 정비보수로써 설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의 부단한 갱신이 생산물의 량적, 질적수준을 담보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기간공업부문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게 되여있는 정비보강계획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여 국가적인 생산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이미 세운 국가적인 조치들의 실행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부족한 문제들과 요소들을 더 찾아 결정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제는 물론 국가와 사회생활의 발전이 중요하게 건설물의 실체로 표현되는것만큼 건설부문에서는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올해계획을 드팀없이 완결하여야 합니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과 농촌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건설물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건축설계수준을 세계적인 높이에로 끌어올리고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표준화, 현대화하는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삼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려관들을 호텔로 전환하고 관광대상들을 더 개발하여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대상건설들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시대발전과 현실적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경제적수단과 방법들을 결정적으로 갱신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장악력, 지휘력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원활하고 편안한 류통을 중요시하고 기업체들의 상대적독자성에 기초한 생산경영활동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는데 선차성을 부여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단지 농업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올해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명확한 실천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까지의 큰물피해복구사업정형을 분석평가하시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

였다.

기일이 촉박하고 복구대상과 공사량이 방대하다고 하여 건설물의 질을 떨구면 절대로 안됩니다.

복구력량이 충분히 투입되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도 비등되여있는것만큼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는가 끝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건설자재와 설비, 륜전기재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철도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강재와 세멘트, 연유, 통나무, 유리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설비들을 계획대로 제 날자에 어김없이 보장하며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복구사업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여 수해지역 인민들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인민경제부문들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워 자연과의 투쟁도 승리적으로 종결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과 정부가 특별히 중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선결과업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혁명과 건설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에 있어서나, 지방의 세기적인 변혁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제일 중대한 과제로, 필수불가결한 요구로 급부상한 현시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하게 나서는 혁명임무는 없습니다.

수도에 새로 일떠선 몇개 거리를 놓고, 또 수도시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놓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특성과 우월성에 대해 평가하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류례없이 엄혹한 난국이 겹쌓인 속에서 이만큼 한것도 큰 성과라고 자부하여서는 더욱 안됩니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은 혁명발전에 해롭습니다.

고층, 초고층건물들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건축공학적, 구조력학적원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가 굳건하자면 그 우월성을 확신하는 민심적인 기초가 든든하고 전체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여기에 적극 공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고 대를 이어 지켜가려는 전인민적인 일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 령토를 이루고있으며 우리 국가제도를 떠받드는 지역적거점, 말단단위인 시, 군, 농촌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처럼 지방발전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로, 우리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기때문에 나는 올해초에 전원회의사업토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강력한 실행에 더없이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매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기지, 량곡관리시설건설을 병행시켜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관철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해인것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계획한 대상과제들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10년혁명의 본격적인 시행단계를 확신성있게 열어놓아야 합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년말에는 반드시 20개 시, 군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완공의 실체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방건설에 동원된 각급 군부대 관병들은 당의 존엄, 인민군대의 명예를 걸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20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가 90%계선에 들어섰는데 설비제작과 수입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도 분담된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중앙의 경공업공장들과 해당 대학들, 도, 시, 군들에서는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제정된 기일안에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당 지방발전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이 완공되는 차제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들을 준비하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현실로 전환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는데서 매개 시, 군들이 자체의 예비를 조성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바다가양식업의 표본기지로 건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3개 대상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미 추가대상으로 예견하였던 과학기술보급중심은 종합적인 문화생활거점으로 확장하여 건설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시, 군들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을 갖춘 과학기술보급거점만이 아닌 주민들이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문화생활도 하며 위생환경조건이 보장된 상업망들과 기타 각종 편의시설들까지 포함된 다기능화된 복합형문화중심을 리용할수 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종합적인 문화생활중심은 지방건설력사에서 개념조차 없던 새로운 대상인것만큼 나는 지대적조건과 인구수에 따라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형성안을 비롯한 건축설계를 잘하고 그에 맞게 건설예산안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20개 시, 군들을 훌륭히 일신시켜나가면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도농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이 도시사람들 못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해질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것이며 따라서 이런 형세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적강세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보다 중대한 조치들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요구합니다.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력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핵무력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안에서 운용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항시 엄중한 핵위협을 받고있는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을 위협적이라고 떠드는 그런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려는 적의를 품고있다는것을 자인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이한 위협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안전환경하에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우리 당과 정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할 의무이며 생존권리입니다.

강력한 힘,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입니다.

우리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지역안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힘으로 국가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는것은 당과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국사이고 혁명의 제1대과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수 있는 핵력량을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나갈것입니다.

다시금 확언하건대 우리의 지향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결정관철의 확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적극적으로 활약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혁명의 요구와 맡고있는 책무를 똑바로 자각하고 자기 사명을 깊이 명심하여 올해 투쟁과업들을 무조건,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문, 단위앞에 시달된 정책적과업들과 그 실행을 위해 채택한 당결정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과 재포치사업을 심화시키면서 립체전, 전격전을 완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력과 지도력,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 투쟁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격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년말까지 실속있는 결과물들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계획목표점령을 위한 사업을 행정일군들에게 밀어맡기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극복하고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은 대중의 정신력과 지혜를 얼마나 높이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높은 책임성과 분발력을 발휘하여 생산자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전개함으로써 전국이 들끓고 그 어느 단위에서나 집단적혁신운동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이 모든 조건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세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투쟁목표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관점을 심어주어 그들이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들끓는 투쟁현장들에 투입하여 강력한 사상공세를 잠시도 중단없이 줄기차게 들이댐으로써 대중의 뜻과 마음이 올해 계획목표점령에로 총지향되고 일터마다에서 앙양된 혁명열, 투쟁열이 식지 않고 계속 고조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조직자, 집행자인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도성, 창발성, 활동성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실속있게, 완벽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분투하도록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과 정부내 각급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지도간부들이 맡은 책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항상 긴장한 책임의식속에서 어떻게 하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직책상임무를 똑바로 수행하겠는가를 모색하고 치밀하게 작전하며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도록 장악통제하면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는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가장 힘든 모퉁이, 누구나 선뜻 나서기 주저하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올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사활이 결정될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 이 기간에 보다 책임적으로 사업해야 할 일군들이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할것을 맹약한 시효기간이 이제 11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하루한시도 허술히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수행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의 전반사업이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 격변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되여나가도록 하는데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올해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거창하면서도 보람찬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추진시키고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수월치 않고 난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확고한 자신심과 완강한 의지로 괄목할만한 실적들을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올해를 국가발전사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모두다 우리의 어머니조국의 평안과 륭성, 거창한 번영을 위해 그리고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해나간다는 긍지와 자신심을 백배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아갑시다.

이 나라의 모두에게 다시한번 따뜻한 축원을 드리며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국경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청년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일군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았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조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충정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군중들은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최대의 영광과 긍지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학생청년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집회 및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조국인민의 사랑이 열렬하기에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주체113(2024)년 9월 8일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집회 및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승리만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불멸의 영광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시위행진이 있었다.

공화국의 발전사가 력력히 비껴있는 대형국기를 정히 받쳐들고 나아가는 시위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의 전부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며 값비싼 승리만을 수놓아온 자긍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자주강국의 존엄과 긍지가 차넘치는 경축광장으로 국가의 자랑이고 미래의 주인공들인 소년단원대렬이 씩씩하게 행진해나아갔다.

성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를 애국의 더운 피로, 헌신의 노력으로 굳건히 지키고 받들어갈 불같은 열망속에 국기시위대렬들이 아름다운 률동을 펼치며 련이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세기의 단상에 더 높이 떠올리며 혁명의 천만리를 일편단심 변함없이 가고갈 인민의 신념이 경축광장에 세차게 맥동쳤다.

시위행진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여나갈 드높은 기개와 열정에 넘쳐 《사랑하자 나의 조국》, 《제일 좋은 내 나라》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경쾌하고 박력있는 률동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희열과 랑만이 야회장에 한껏 차넘치고 학생소년들의 장고춤과 부채춤 등이 펼쳐져 기쁨을 더해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활기를 띠는 야회장에 눈부신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경축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주체113(2024)년 9월 9일 만수대의사당앞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에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공연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 태여난 기념비적조국찬가 《빛나는 조국》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빛내이는 장엄한 투쟁의 년대들에 높이 울려퍼진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전체 인민의 애국의지로 굳건하고 일치단결된 무진한 힘으로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의 억년무궁함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훌륭히 펼쳐보인 공연은 국경절을 더욱 뜻깊게 기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 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전국각지 여러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연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한편 **김일성**경기장과 대동강에서 진행된 남자축구경기와 해양체육모범출연은 9월명절의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수도와 각지의 봉사망들이 손님들로 흥성이였다.

옥류관, 평남면옥과 사리원의 경암각 등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 특색있는 명절봉사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도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이밖에도 각지에서 펼쳐진 경축공연들과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로 국경절의 분위기는 더욱 환희로왔다.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로 온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장한 딸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였다.

조별련맹전경기에서 련전련승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16강자전경기에서 오스트리아팀을, 준준결승경기와 준결승경기에서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던 브라질팀과 미국팀을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여 9월 22일 일본팀과 대전하였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극적인 공빼앗기로 상대팀을 압박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경기시간 15분경 우리 팀의 15번 최일선선수가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일본선수들을 재치있게 빼돌리고 강한 왼발차넣기로 득점에 성공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우리 선수들은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고 단번련락에 의한 측면, 반측면돌파와 불의적인 역습속공 등으로 상대팀 문전을 련속 위협하였다.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최일선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수여되였다.

실점을 만회하려는 일본선수들의 필사적인 공격은 우리 팀의 견고한 방어에 부딪쳐 좌절당하였다.

결국 결승경기에서는 높은 집단력과 강의한 정신력으로 일본팀을 압도한 우리 나라 팀이 상대팀을 1:0으로 타승하였다.

어머니조국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보고, 기쁨의 소식을 드리였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우리의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경기장을 내달리는 우승자들의 모습은 세계의 수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부터 시작하여 결승단계에 이르는 7차례의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였으며 도합 25개의 꼴을 넣었다. 미국팀과의 준결승경기에 이어 일본팀과의 결승경기에서도 결정적인 득점으로 팀의 승리에 이바지한 최일선선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도합 6개의 꼴을 넣음으로써 최고득점자로 되였다.

시상식에서는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최일선선수에게는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수여되였다.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은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애국으로 흥하는 나라

무수히, 끊임없이 태여나고있다.

조국의 각곳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애국운동과 더불어 애국자, 애국집단이.

그런 애국자, 집단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있다.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는 오늘의 시대는 조국에 또 하나의 값높은 호칭을 드리고있다.

애국자가 많은 나라!

애국이라는 두 글자를 외울수록 항상 나라일을 생각하면서 애오라지 그 하나를 위해 자기 맡은 부문에서 헌신하고있는 우리가 만나본 참된 공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해 전승 70돐까지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년말에는 계획보다 1만t의 광물을 증산한 은파광산 광명갱 광부들의 모습들이 먼저 되새겨진다.

겉모습은 수수하여도 이곳 광부들은 주체99(2010)년부터 해마다 광물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10여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연 5만 7 700여t의 광석을 증산하였다. 그러고보면 주체112(2023)년에 이들이 증산한 광물 1만t은 보통때의 근 3배에 달하는 수자이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는데서 보람을 찾은 광부들, 이들의 성격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광물증산이라는 하나에 마음을 합쳤다.

광명갱 광부들은 애로가 제기될 때마다 현존설비와 생산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던 대형압축기를 기적적으로 생산한 룡성의 로동계급을 그려보았고 사회주의애국탄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린 애국운동의 선구자들인 평남탄전의 애국탄부집단에 자신을 세워보기도 하였다.

이런 애국의 마음이 자라고 합쳐져 그들은 1만t의 광물증산이라는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흥남의 비료생산자들도, 온천군 금당농장 제4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애국으로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의 부름에 호응하였다.

사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온천군 금당농장 제4작업반은 군적으로도 뒤자리를 맡아놓고있다싶이한 락후한 단위였다. 농장적으로도 땅은 제일 척박하였다. 365일을 하루와 같이 땅과 함께 살며 땅을 살지우기 위해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이 온갖 지성을 기울이였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발벗고나서군 하였다. 안해가 불치의 병을 앓고있었지만 그런 내색은 한번도 하지 않고 작업반원의 앓는 자식에게 먼저 찾아간 그였다. 영광의 자리마저 분조장들과 농장원들에게 양보하며 좋은 날에나 어려운 날에나 바란것은 오직 하나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하는것이였다.

나라앞에 지닌 농민의 본분을 죽어도 베고 죽어야 할 종자처럼 간직하고 집단의 밑거름으로 사는 작업반장의 그 마음, 그 일본새를 작업반원모두가 닮아갔다. 지난 10여년간 이 작업반이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나라에 더 바친 알곡은 수백t에 달한다.

오늘 작업반은 전원이 다수확농민들로, 국가수훈자들로 되였다. 이들을 따라 전국의 여러 농장들에서 애국의 불길이 세차게 지펴올랐다.

최근에만도 화대군 읍농장, 영광군 상중농장, 경성군 일향농장 등 수많은 농장과 작업반들에서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증산한 알곡을 나라에 바치였다.

애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도, 특정한 사람이 하는것도 아니다, 나를 바쳐 환자 한명이라도 살려내면 그들이 나라에 보탬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호원의 직업을 더욱 사랑한다는 은천군병원 산부인과 간호장 안경실, 사회에서 맡은 직무에는 높고낮음이 있을수 있어도 조국에 바치는 애국심에는 결코 크고작은것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건설장들의 야간지원자들이 된 유명무명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바탕에는 《스스로!》라는 가식없고 진함없는 진정이 용용히 흐르고있다.

하다면 이 애국심의 근본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인지.

조국인민 누구나 기억하고있다.

지난 7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지역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아시고 전화로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을수도 있으시였지만 침수위험구역에 직접 나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을.

불리한 일기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 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물이 불어난 현장으로 고무단정을 타고가시며 피해실상을 료해하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인민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느끼였다.

실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애국을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시였다.

내 나라의 국위와 인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도 주저없이 나가시였고 자그마한 목선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여 날바다를 헤치시며 조국을 지키고있는 전선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였다.

당장 주저앉을것만 같은 물먹은 나무방틀의 철다리우로 렬차를 달려 피해복구현장을 찾으시였고 허리치는 감탕물에 주저없이 들어서시여 바다물에 잠긴 벼 한포기한포기를 타드는 심정으로 쓸어보시였으며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을 위해 악성전염병이 배회하는 약국들에도 들어서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지난 10여년간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매혹되고 온넋이 끌려 그이와 일심동체가 된 인민이 애국으로 세월의 풍파를 이긴 나날이며 국력과 국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강대해진 강국의 빛나는 전성기였다.

그렇다. 애국심의 근본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끌리는 마음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따르고 그이께서 바라시는 길에서 청춘도 행복도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숭고한 자각이며 의지이다.

이 세상에 자기 수령의 애국의 세계에 무한히 끌려 그이와 한식솔이 된 이 위대한 혼연일체를 가를 힘은 없다.

강국의 기초는 곧 애국적인민이다.

애국자가 많은 나라는 흥하기마련이다.

애국의 힘으로 조국인민들은 기적을 창조하며 찬란한 강국의 래일을 앞당겨나갈것이다.

리선의

81살에 받은 영예상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과 금반지를 수여받은 남길현

내 이제는 80살이 지났다. 하지만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할 열망은 식지 않았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혁명적인 가정의 대, 애국적인 가정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는 20명의 녀성들이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과 금반지를 수여받았다.

대성구역 룡흥1동 91인민반에서 사는 남길현녀성도 그들중의 한사람이다.

하다면 81살의 년로보장을 받은 그가 어떻게 되여 온 나라 녀성들이 부러워하는 영예의 단상에 오르게 되였는지.

그의 한생은 지질탐사부문에서 기술일군으로, 연구사로 흘러왔다.

주체53(1964)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남길현녀성이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은 곳은 조국땅 방방곡곡의 산발을 탐사하여 광물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지질탐사부문이였다.

녀성의 몸으로 계절이 따로없이 줄창 집을 나가있어야 하는데다가 점차 가정을 이루고 세 자식의 어머니가 된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출장길에서 엄마를 찾으며 보챌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흔들린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의 뇌리를 친것은 나라없던 시절 혁명투쟁에 참가하고 오로지 한생을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온 반일애국렬사인 아버지의 당부였다. 그리고 자기를 과학자로 키워준 조국의 고마움이였으며 그 은정에 보답해야 할 공민으로서, 과학자로서의 량심과 의무였다.

이렇듯 자신을 쉬임없이 채찍질해온 그였기에 36년세월 탐구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교육자인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는 속에서도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가치있는 도서를 집필하고 론문도 발표하여 학위를 소유하게 되였다.

공민으로서, 녀성으로서 남길현녀성의 공로는 결코 한생을 지질분야에 깡그리 바쳐온데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력학부(당시) 교원이였던 그의 남편이 교수, 박사칭호를 받은데도, 세 자식모두가 조국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는 참된 과학자, 기술자들로 성장하게 된것도 남길현녀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식들이 나라앞에 떳떳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는 없지만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참된 인생의 철리를 새겨주기 위해 왼심을 많이 썼다.

언제인가 맏아들이 놀음에 정신이 팔려 숙제를 끝내지 못했을 때였다. 그는 맏아들을 탓할 대신에 세 자식들을 TV앞에 앉혀놓고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보여주었다. 영화속의 바이올린을 타는 청년이 하늘에선 비행기가 날고 땅우에는 기차가 달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갓쓰고 음풍영월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절규하는 장면을 주의깊게 보게 하였다.

영화가 끝난 후 그는 자식들에게 봐라,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자면 과학을 해야 한다, 과학자가 되자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학습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주었다.

어머니가 한 말은 자식들이 과학자, 기술자로 성장하게 한 지침과도 같았다고 맏아들은 회상하였다.

남길현녀성은 자식들의 인생주로선택의 리정표로, 난관과 시련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주는 버팀목으로, 아픈 매도 서슴없이 드는 채찍이 되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였다. 둘째아들이 대학졸업을 앞둔 어느날 저녁 딸이 어머니에게 온 가족이 과학자, 기술자로 일하고있는데 막내만이라도 다른 직업을 택하게 하자고 말한적이 있었다. 사실 둘째아들은 대학생시절에 건축계를 놀라게 하는 론문을 발표하여 미래가 촉망된다는 평을 받고있었다.

그때 남길현녀성은 자식들에게 반일애국렬사인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보여주며 우리는 달리 살수 없는 유자녀들이다, 나는 아이들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부족한 어머니가 될지언정 그릇된 인생관을 심어주는 배은망덕한 어머니는 될수 없다, 너희들이 열심히 배운것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이지 제살궁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느냐고 엄하게 질책하였다.

그제서야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어려운 속에서 세 자식을 키우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도 탐구의 길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변함없이 가는지 알게 되였으며 자신들도 어머니처럼 한생을 조국번영을 위한 길에 바칠것을 결심하였다.

이렇듯 남길현녀성의 참된 한생과 웅심깊은 사랑을 삶의 자양분으로 하여 맏아들은 공훈기술자로, 둘째아들은 과학연구사업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 영생의 언덕에 오른 애국렬사로, 딸은 박사, 부교수로 성장할수 있었다.

이러한 공산주의어머니들이 있기에 수많은 자식들, 후대들이 이 나라를 받드는 초석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부모들이 걸어온 애국의 길을 대를 이어가고있다.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은것을 축하해주는 이웃들과 함께 있는 남길현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부부산림감독원

북창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인 리경호가 담당한 삼리지구는 1 000여정보의 야산들로 이루어져있다.

주체104(2015)년부터 산림감독원으로 일해오고있는 그가 처음 이 지역을 담당하였을 때 산에는 나무가 많지 못하고 잡관목만 무성하였다고 한다. 한것은 삼리지구가 암반이 많고 흙층이 얇은것으로 하여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기때문이였다.

먼저 그는 수십리의 산길을 톺으며 담당림의 숲조성상태와 지형을 속속들이 파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빨리 자래우기 위해서는 숲사이양묘장을 꾸려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리용반원들과 함께 유기질비료를 내면서 땅을 걸구었다. 숲사이양묘장을 품들여 꾸려놓은 그는 거기에서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 많은 나무모를 키워냈다.

주체107(2018)년 그의 안해인 최은희녀성도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어떻게 산림감독원이 될 생각을 하게 되였는가는 우리의 물음에 최은희는 《처음에는 남편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나도 점차 숲에 정이 들게 되여 산림감독원이 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여 해마다 수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그 나날 결코 산에 나무만 심은것이 아니였다.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에 자기들의 지성과 꿈을 함께 담아왔다.

산리용반원들과 함께 숲사이양묘장을 더 늘이고 지력을 높이는 한편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였다. 여름이면 심은 나무들이 상할세라 마음썼고 나무들이 병들세라 담당림을 돌아보았다. 봄철이나 가을철이면 애써 심어가꾼 나무들이 산불피해를 입을가 걱정하며 늦은밤, 이른새벽에도 수십리 산길을 걷군 하였다. 그 나날 일년 열두달 치고 집에 있는 날보다 산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산판을 얼마나 다니고다녔는지 어느 구역에는 무슨 나무가 얼마나 있고 나무상태는 어떠하며 또 어느 구역에 있는 나무의 종자는 언제쯤 걷어들여야 한다는것을 그들은 손금보듯 알게 되였다.

그렇게 애지중지 심고 가꾸어온 나무들이 한해가 다르게 커가고 숲이 무성해질수록 그들은 산림보호관리사업에서 더욱 책임성을 높이였다. 산불감시에서 빈틈이 없게 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이 입산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숲을 넓혀나갔다.

최근년간 여러 차례 폭우가 들이닥쳤을 때에도 삼리지구는 산림의 덕을 보았으며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년전에 그들은 산기슭에 추리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파일나무들도 심어 경제적효과성을 높이였다.

아직은 하늘이 올려다보이지 않을만큼 크고 무성하지 못해도 그 나무 한그루한그루에는 이들의 소중한 꿈이 깃들어있다.

《산림을 가꾸는것은 농사를 짓는것과는 다릅니다. 나무를 심어 그 덕을 보자면 한세대가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숲이 무성해져 나라의 재부가 되고 사람들이 열매를 따는 모습을 그려보며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라고 이들부부는 말하였다.

사람들은 드넓은 산판을 용재림, 원료림으로 가꾸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는 그들을 두고 애국자산림감독원부부라고 부른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순회의 쉴참에 딸과 함께

조선로동당의 《하느님》

어머니!

조국인민은 누구나 스스럼없이 우리 당을 이렇게 부른다.

이러한 전인민적인 감정은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더불어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였으며 더욱더 공고화된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주체34(1945)년 10월 10일 온 세상에 탄생을 알린 그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오직 인민을 믿고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며 자기의 궤도를 한치의 탈선없이 달려왔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원래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을 창건하면서 그 기폭에 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넣었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그이이시기에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였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기고 장장 70여성상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나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기초였고 출발점이였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한 농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실 때였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농민들이 그이께서 사회주의에 대하여 깨우쳐주시자 협동조합과 같은것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것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왜 벌써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았는가고 말씀올리였다.

인민들은 사회주의혁명을 하루빨리 해나갈것을 지향하고있었던것이다.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철학》과 주의주장을 내돌려도 바로 이러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귀중히 여기였기에 우리 당은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을 과감히 전개해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인민의 목소리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령도는 그대로 우리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을 위해 복무해나가는것을 원칙으로 삼게 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 방도도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찾군 하였다.

주체45(1956)년 12월의 추운 어느날 이른아침 나라의 긴장한 강재문제를 풀기 위하여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름아닌 그곳의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나라가 처한 어려운 형편을 알려주시고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에 붙이시였다.

자기들을 그처럼 믿어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으로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산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자기들이 결의한 9만t보다도 3만t이나 더 많은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철저히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좌우명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당의 활동방식으로 되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가지 명예칭호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우리 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여도 철저히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신 그이의 령도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진 강력한 원동력이였다.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의 위력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뚜렷이 검증된다. 조선로동당은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어려운 나날에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였고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당은 언제나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여기며 헌신적복무로 받들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력이 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본태와 본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신의 정치리념, 최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인민을 하늘처럼!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

이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며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도 제시하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더욱 숭고한 경지에로 승화발전시키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광명한 미래를 확신하며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받들고있다.

오늘 력사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며 왕성한 활력에 넘쳐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설계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받들어 조국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정녕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당-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기쁨속에 그려보신 래일

주체101(2012)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개업을 앞둔 창전해맞이식당을 찾으시였다.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시공정형과 상품진렬상태, 봉사계획, 료리의 가지수와 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해맞이식당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이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해맞이식당은 인민들이 즐겨 찾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하시였다.

밝혀주신 양어와 양식의 전망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양어사업소를 찾으시였다.

사업소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업소가 정말 명당자리에 꾸려졌다고, 별세상에 온것같다고 하시며 여기에서 대대손손 물려갈 조국의 귀중한 재산을 또 하나 보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양어와 양식의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양어와 양식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리용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바다양어와 양식에서 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바다양어와 양식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무거운 걸음과 가벼운 걸음

주체104(2015)년 뜻깊은 당창건 70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땅 한끝인 라선시로 향하시였다. 뜻하지 않은 큰물피해를 입었던 라선시에서 피해복구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머나먼 길을 떠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불과 20일전 수수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점심식사마저 잊으신채 흙먼지가 뽀얗게 날리는 길아닌 길을 걸으시며 라선시를 찾으시였던 그이께서 자연의 광란이 휩쓸었던 그 땅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자신이 직접 보지 않으시고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배길, 령길을 또다시 재촉하신것이였다.

머나먼 길을 달려오신 그이의 앞에는 천지개벽된 라선시 선봉지구(당시) 백학동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양지바른 산기슭을 따라 아름다운 황홀경을 이룬 마을을 환하신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전번에 올 때에는 큰물피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새집을 지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댔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0일전에는 인민의 아픔을 안고 오신 걸음이여서 무거우셨건만 오늘은 인민에게 안겨줄 기쁨이 실린 걸음이여서 그토록 가벼우신 그이이시였다.

* * *

옥돌공예 《길상여의》

옥돌공예 《길상여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해외동포인 중국의 한 유한공사 경리가 안해와 함께 주체104(2015)년 10월 10일 조국을 방문하여 삼가 드린 선물이다.

희귀한 옥돌을 정교하게 다듬어만든 선물에는 령지버섯과 6마리의 코끼리가 형상되여있다.

선물의 받침대 앞면에는 《길상여의》라는 글이 씌여져있는데 그것은 경사스러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있다.

옥돌공예 《길상여의》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해외동포부부의 뜨거운 진정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조국이 부강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져있다.

* * *

라자구등판에서

(전호에서 계속)

후날 우리의 방면군에 편입된 서규오는 10련대장으로 임명되여 최후까지 잘 싸웠다. 한때 아편과 녀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며 난봉을 부리던 그가 혁명군에 편입된 후에는 공산당에까지 입당하였다. 내가 부대의 이름으로 입당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군지휘동지, 나는 오늘 입당하면서 군지휘동지의 아우를 생각했습니다. 철주가 아니였더라면 나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철주가 림춘추동무를 데리고와서 자기의 병을 떼주던 사실과 자기가 반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꾸준히 이끌어주던 사실을 옛말같이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1935년 6월에 철주는 처창즈근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는 철주가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경박호반에서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큰강이나 호수를 보기만 하면 동생생각을 하군 한다.

철주까지 전사하고나니 막내동생은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가 되였다. 김정룡이네가 처창즈유격근거지로 들어간 다음부터 동생은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아이보개도 하고 심부름군노릇도 하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관동군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에 써먹으려고 나의 연고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들이던 때였으므로 막내동생은 자기의 이름자와 출신마저 속이고 동북3성은 물론, 중국관내의 도회지들과 농촌들에까지 들락날락하며 정처없는 류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다나니 그는 베이징에도 얼마간 가있었다.

나도 해방후 일본경찰들이 남기고간 문건에서 동생의 수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았다.

막내동생은 신경맥주공장에서 일할 때 고향이 너무 그리워 조국에 나와서 석달가량 지냈다. 그때 그는 검은 양복차림에 흰 구두를 신고 만경대에 나타났다.

그 차림새가 어찌나도 의젓하고 름름해보였던지 우리 할아버지는 막내손자가 무슨 벼슬자리라도 얻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이였다. 그때 막내동생은 조부모님들에게 시름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장춘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였다. 경찰이 사진까지 내돌리며 지명수배를 하고있던 때여서 그는 고향에 나와서도 만경대에 있지 못하고 칫째고모네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가버리였다.

량강구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40명 대오는 돈화와 액목을 거쳐 산발을 타고 남호두방면으로 북상하였다. 우리 부대가 나의 《머슴군》시절이 흘러간 그 유명한 푸르허마을에 들려 정치공작을 한것도 이때이며 돈화현 할바령부근에서 돈도선(돈화—도문)철도부설공사에 동원된 일본군수송대와 격전을 벌린것도 이무렵이였다. 이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돈화현 두도량자에서 고재봉도 만났다.

적들의 폭압이 심한 사도황구를 떠나 두도량자로 활동무대를 옮긴 고재봉은 지하조직이 운영하는 농민학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두도량자에서 돈화현성까지는 30리밖에 안되였다.

나는 그때 두도량자에서 고재봉의 어머니도 만나보았다.

우리는 일본군수송대를 들이치고 로획한 밀가루를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인민들과 함께 먹었다. 그 전투에서 로획한 광목천은 농민학원에 주어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도록 하였다.

두도량자를 떠난 우리 부대는 다시 북상하여 관지부근과 남호두지방에서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한 다음 왕청지구에 들어가 당, 공청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료해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얼굴을 익히였다. 이것은 장차 왕청에 활동거점을 잡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할수 있었다.

우리는 왕청에 가서도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리광의 별동대가 총 몇자루를 해결하려고 잘못 건드려놓은 관보전부대를 만나려고 리수구에 찾아갔다. 그런데 관보전은 벌써 항일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관영장을 만나기만 하면 왕청동무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사죄도 하고 공동투쟁을 위한 방도도 의논하면서 지난날 조, 중무장부대들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관보전은 달아났지만 나머지사람들이라도 만나려고 련락을 보냈더니 100명쯤 되는 반일부대병사들이 돈화현성에서 일본군대를 족친 김일성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보자고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앞에서 왕청별동대가 무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영장부대의 병사들에게 손을 댄것이 비우호적인 처사였음을 인정하고 조중인민의 공동투쟁과 반일부대의 사명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연설을 하였다.

그 연설에 대한 반일부대사람들의 반향이 좋았다. 코산이라는 지휘관은 그 연설을 듣고나서 자기도 관보전처럼 항일을 포기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옳은 길을 걷겠다고 하였다. 그 결의대로 그는 반일전선에서 잘 싸웠다. 왕청에서 큰 두통거리로 되였던 반일부대와의 화해는 이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던 좌경적편향을 없애고 그들을 항일련합전선에 더 많이 인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자구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그때 동녕현성에 집결된 구국군부대들은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관내에로 퇴각할 차비를 하고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국경밖으로 달아나려고 서두르는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그들을 반일전선에 튼튼히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격투쟁앞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수 있었다. 반일부대들을 격파하기 위하여 사방에 분산되였던 적들의 《토벌》력량은 몇백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유격대들에 집중되여 유년기에 있는 우리의 무장력을 단순에 질식시킬수 있었다. 적아의 력량관계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만주의 군소도시들을 다 점령할 계획밑에 도처에서 반일무장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있었다. 그들은 현소재지까지 다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회의에는 나와 리광,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을 비롯하여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나와 리광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였고 진한장, 왕윤성, 호진민, 주보중은 중국측을 대표하였다.

회의의 기본안건은 구국군의 도주를 막고 반일련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왕청유격대의 과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과오의 시초로 된것은 왕청부대에서 발생되였던 《김명산사건》이였다. 김명산은 원래 장학량군시절의 《보위탄》에 있다가 9.18사변후 6명의 중국인부하를 거느리고 왕청유격대로 반변해온 조선사람이였다. 그는 명포수출신으로서 싸움을 잘하였다. 왕청부대동무들은 그가 반변해오자 금덩이가 굴러들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반변해온 중국인대원 6명중 한명이 적통치구역에 정찰을 나갔다가 대감자음식점에 들려 값도 치르지 않고 호떡 한그릇을 먹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음식값을 물어줄 돈이 없었다. 그는 부대에 돌아와 자기가 돈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온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보고하였다.

현당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좌경분자들은 유격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해독분자라는 감투를 씌워 그 중국인대원을 총살하였다. 현당 군사부의 조치로 왕청에서 처형당한 중국인대원들의 수는 무려 10여명에 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백살장수자의 일과

우리는 얼마전 지난 6월에 백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2동 8인민반에 살고있는 전생원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우리가 집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돋보기도 없이 증손자의 글쓰기를 보아주면서 콩고르기를 하고있었다.

할머니의 셋째며느리 최복실(67살)은 시어머니가 지난 6월 백번째 생일을 쇨 때 출장으로 참가하지 못한 증손자의 손에 이끌려 송화거리에 있는 그의 집에 며칠동안 가있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에는 순두부를 하자며 지금 직접 콩을 고르는중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며느리로부터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듣고난 할머니는 매우 반가와하며 《좋은 세상을 만나 이렇게 오래 살고있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를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나에게 생일상까지 보내주셨구려.》 하며 아들에게 생일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라고 하는것이였다.

셋째아들인 정용섭(70살)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백번째 생일을 쇤 후부터 기력이 더 좋아지고있다며 할머니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전생원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을 한 다음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을 가꾸는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있다.

그리고는 아침식사준비를 하는 손자며느리의 일손을 도와 남새를 다듬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식구들을 부른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아빠트주변의 꽃밭들을 가꾸고있다. 집이 20층에 있지만 종종 그는 승강기를 리용하지 않고 걸어서 내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13(2024)년 6월 24일 백번째 생일을 맞는 전생원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점심식사후 1시간정도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자며느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안을 거두고 바늘질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집안의 일거리들을 찾아하군 한다는것이였다.

전생원할머니는 아직 크게 앓아본적이 없다. 동진료소에서 한주일에 한번씩 종합검진을 하고 그의 건강상태를 놓고 협의회가 진행되고있다.

황해남도 벽성군 빈농의 가정에서 태여나 망국민의 설음을 사무치게 겪은 그에게는 백살이 넘은 오늘까지도 애창하는 두곡의 노래가 있다.

하나는 강반석어머님께서 조국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바치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가요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요 《아리랑》이다. 명절날을 비롯하여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들은 그의 고정곡으로 되여왔으며 지금도 즐겨 부르는데 발음과 음정이 정확하여 누구나 놀라와하고있다.

할머니의 락천적이고 근면한 생활습성과 편식을 모르고 남새와 수산물을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방식을 취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격과 습관이 그가 장수할수 있은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4남4녀의 자식들을 낳아 떳떳이 내세우는것으로써 나라를 받들기 위해 애썼고 오래동안 인민반장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온 그는 지금도 손자와 증손자들을 자주 신칙하군 한다.

셋째아들은 자기 나이 70이여서 밖에 나가면 존대를 받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아직도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다는 웃음속의 《하소연》속에서 우리는 전생원할머니가정의 화목한 생활의 일단도 엿볼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리철

자식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있는 전생원할머니

유모아

가장 가치있는것과 가장 가치없는것

몇몇 로인들이 한담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것과 가치없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로인이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들중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니 알겠구만. 세상에서 제일 가치있는게 뭐요?》

《충고요.》

《제일 가치없는것은?》

《충고요.》

《이 령감이 사람을 놀리는군.》

묻던 로인은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눈을 흘기였다.

그러자 대답하던 로인이 말하였다.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뜻을 알수 있소.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제일 큰 가치를 가지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지요.》

*　*　*

늘어나는 중앙동물원의 새 식구들

새끼조선범들

새끼훔볼트펭긴

새끼소관앵무

중앙동물원에 새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곳 일군인 문창해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만도 중앙동물원에서는 소관앵무, 애완용개 시츄, 훔볼트펭긴을 비롯하여 총 80여종의 동물들에서 670여마리의 새끼를 받았다고 한다.

제일먼저 새끼를 친 동물은 지난 1월에 한마리의 새끼를 친 소관앵무이다.

오스트랄리아에 분포되여 사는 이 소관앵무는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잡은지 10년이 지났다.

3월에도 애완용개 시츄가 새끼 2마리(수컷)를 낳았는데 당시 새끼들의 몸질량은 110g이였고 몸길이는 10㎝정도였다고 한다.

동물원에서는 4월에도 훔볼트펭긴이 한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고양이원숭이도 한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 이후 다른 고양이원숭이들도 또 새끼를 낳아 식구수를 모두 5마리로 늘이였다.

늘어난 새 식구들중에는 조선범과 반달곰, 여러 나라의 개품종들인 슈나우저와 아이리시세터도 있다.

조선범은 3마리의 새끼(수컷 한마리, 암컷 2마리)를 낳았으며 반달곰은 한마리를, 슈나우저는 한마리를, 아이리시 세터는 2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중앙동물원에서는 적지 않은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데 맞게 동물사양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맹수사 작업반장인 공훈사양관리공 김순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범이 계속 늘어난것을 두고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맹수들의 생리적특성을 잘 알고 사소한 거동에서도 이상증상을 제때에 발견하여 대책해가고있다. 특히 새끼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하고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범새끼들이 처음에는 무게가 0.8~1kg정도였는데 3달이 지난 지금은 작업반원들의 노력에 의해 모든 새끼들의 몸무게가 10kg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엄지쌍봉약대와 새끼

새끼고양이원숭이들과 함께 있는 사양관리공

이러한 이야기는 처음무게가 500g밖에 안되던 새끼반달곰이 몇달만에 15kg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곰사양관리공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사양관리공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희귀한 동물들을 적극 보호관리하고 널리 번식시켜나가려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사양관리공들의 노력에 의해 중앙동물원에 새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 다양한 동물세계를 펼치고있다.

엄지소말리아하늘소와 새끼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다양한 소조활동으로

평양시의 중구역에 있는 동흥소학교에서 방과후 다양한 과외소조활동으로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시키고있다.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뛰여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만 망라시켜 한두개의 소조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취미와 소질, 능력에 따르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양시키기 위한 여러 형태의 소조들을 새로 내왔다.

립체도형만들기소조에서는 남달리 호기심이 강하고 무엇이나 만들어보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공간도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주고 종이나 조립식놀이감을 리용하여 각종 형태의 도형들을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소조원들의 사고력은 물론 상상력, 창조력도 높아지고있다. 하여 구역에서 진행된 소학교학생들의 립체도형만들기경연에서 학교의 소조원들이 출품한 각이한 립체도형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산소조에서도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주산기능과 암산기능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훈련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좋아지고있다.

오랜 소조들중의 하나인 무용소조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 매 소조원들의 천성적인 소질에 따라 소조운영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에 맞는 개별 및 집체훈련지도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하여 올해에 진행된 제59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무용부문에서 1등을 쟁취하여 5련승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수학, 음악, 영어, 탁구, 축구 등 여러 과외소조들에서도 소조별특성에 따르는 선진적인 교수방법들을 도입하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부교장 신은희는 《우리의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며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과외소조를 더 늘이고 많은 학생들을 망라시켜 모든 소조활동이 학생들의 지적능력계발에서 좋은 기회로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여러 과외소조들에서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다.

무도발전을 추동하여 25년

김승환

주체113(2024)년 6월에 진행된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회

평양에 본부를 두고있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의 발기에 의하여 주체88(1999)년 9월에 창립된 국제무도기구이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 부사무총장 김승환은 무도기구의 사명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보급되고있는 무도종목들을 사회발전과 더불어 인류공동의 재부로 보존발전시키고 친선, 협조, 발전의 리념밑에 단결과 우애를 도모하며 무도조직들사이의 기술적차이를 줄이기 위한 호상협조를 장려하고 촉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세계무도사에 수놓아진 력사를 더듬었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주체93(2004)년 평양에서 제1차 국제무도경기대회를 진행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8차례의 국제무도경기대회를 아시아와 유럽, 오세안주에서 진행하였다. 처음 경기대회에 34개 나라에서 온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지만 차수를 거듭할수록 무도인들의 참가열의가 더욱 높아져 그 수는 증가하였다.

주체108(2019)년 11월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는 70개 나라에서 온 2 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대회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지난 기간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10차례의 총회와 수차의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구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국제체육계와 무도계에서 무도운동을 당당히 주도해나갈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되였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는 오늘 국제태권도련맹, 세계가라데동맹, 세계무에이련맹을 비롯하여 17개의 국제무도조직들과 45개 나라에 민족무도경기위원회들을 가지고있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에서는 지금 11월에 우즈베끼스딴의 수도 따슈껜뜨에서 열리게 되는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평양에서는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 참가하였던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집행위원인 뱌체슬라브 찌모페예브 세계가라데동맹 위원장은 국제무도경기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태권도사현들

ITF

지난 6월 평양에서는 국제태권도련맹의 주최하에 국제태권도련맹 사현, 사성, 승단자들에 대한 단증수여모임이 진행되였다.

사현으로 된 사람들중에는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들도 있다.

이들은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들과 시범출연에서 두각을 나타낸것은 물론 태권도의 세계적보급을 위해 헌신한 문상일, 정휘성, 강훈사현들이다.

8단을 소유한 문상일사현은 주체98(2009)년부터 6년동안 몽골에 나가 활동한 관록있는 국제사범이다.

이 나라에 류행되는 무도류파들이 많았지만 문상일사범은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며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하여 몽골태권도협회를 더욱 강화하고 많은 수련생들을 다종목특기선수들로 키워냈다.

그가 키워낸 몽골태권도선수들은 여러 차례나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세부종목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 유단자들도 배출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렀지만 몽골태권도선수들은 문상일사현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7단을 받은 정휘성사현은 인민체육인이다.

태권도인치고 키는 크지 않지만 선수생활시기 국제경기마다에서 누구도 모방할수 없는 장면을 펼쳐보이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제1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54kg급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 참가하였던 정휘성사현의 경기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그때 결승경기에서 브라질선수와 대전하였던 정휘성은 빠르면서도 민첩한 동작으로 180° 뛰여돌며차기를 비롯한 특기동작들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의 모습은 그로부터 4년후에 진행된 제13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64kg급 남자개인맞서기 결승경기에서도 볼수 있었다.

그때 경기장의 모든 촬영기들은 저저마다 정휘성의 경기모습을 세부적으로 찍기 위해 한곳으로 일시에 향해졌다. 그는 빠른돌며차기특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법으로 벌가리아선수를 수세에 몰아넣었다.

지난 기간 개인맞서기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과 여러 경기들에서 20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정휘성은 사범이 된 후 많은 특기선수들을 키워냈다.

그가 키운 선수들중에는 국내에서 최우수선수로 지목된 선수들이 많다.

그는 주체92(2003)년 인민체육인칭호를 받았다.

7단을 받은 강훈사현은 주체89(2000)년-주체94(2005)년 국제태권도련맹 시범단 성원으로 로씨야, 그리스,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강훈사현은 시범출연에서 한번조약하며 5개 목표를 격파하는 모습을 펼쳐보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그는 주체97(2008)년 사범으로 된 후 태권도를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태권도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소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의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나라와 민족, 나이, 성별도 다 각이하였지만 그는 태권도의 매 틀이 담고있는 내용을 알려주는것으로부터 수련을 시작하였다. 수련생들은 짧은 기간에 태권도의 기초동작들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었으며 유단자들로 되였다. 유모아도 있고 기술도 높은 그를 수련생들 누구나가 좋아하며 따르고있다.

국제사범이면서도 심판자격을 가지고있는 태권도사현들은 오늘도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계승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해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문상일

강훈

정휘성

바다향기 넘쳐나는 고장

총석정은 조국이 자랑하는 명소중의 하나이다.

강원도 통천군이라고 하면 명승지로 이름난 바다가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읍지구에는 통천금강으로 불리우는 총석정이 있는가 하면 군내에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감탕치료로 소문난 시중호를 비롯한 명승지들이 적지 않다. 더우기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된 8월25일수산사업소가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알려지게 되였다.

얼마전 우리는 통천군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리영근동포의 조카인 송영순이 살고 있었다.

우리와 만난 송영순의 말에 의하면 삼촌은 년로하여 10여년전부터 조국방문의 길에 아들을 내세우고있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로인의 아들인 리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을 방문하였는데 선친의 고향인 통천에도 매번 들리였다고 하였다.

리영은 총석정의 바다물에 반해 해수욕으로 시간가는줄 몰랐고 해당화 곱게 핀 시중호의 모래불을 발목이 시도록 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리영이 이 고장을 자주 찾는데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당부를 따르고 또 명승지의 절경에 반해서만이 아니였다.

처음 통천땅을 찾았을 때 그는 군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아담하게 일떠선 살림집들과 문화회관, 상점 등의 편의봉사시설들도 나무랄데 없었지만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무상치료를 받는 주민들의 모습은 난생처음 보고 대하는 감동적인 사실이였다. 더우기 사촌누이동생인 송영순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본보기로 내세워 나라의 수산부문을 추켜세울 결심을 안으시고 이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현대적인 《단풍》호고기배들도 보내주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서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물고기대풍으로 보답함으로써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게 되였다는 이야기는 리영동포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보면 볼수록, 들으

통천군의 수산사업소들은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에서 도적으로도 소문이 났다.

면 들을수록 동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그는 송영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명승지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보다는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한 래일을 위해 누구나 몸바쳐나가는 고국인민들에게서 받은 감동이 더 크오. 나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고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결심이요.》

동포는 그후 자기의 결심을 실천하였다.

오늘 통천은 나날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해가고있다. 읍은 물론 여러 리들에 자기 지역의 특성과 현대성이 보장된 특색있는 농촌살림집들을 련이어 건설하는 한편 총석정과 시중호를 비롯한 명승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데 주력하고있다. 이와 함께 군안의 수산기지들에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벌어져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군에 가공 및 랭동능력이 큰 강원도수산사업소가 일떠선데 이어 통천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산사업소들의 개건현대화가 추진되여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고있다.

그런가 하면 바다가양식사업소와 남새온실 등이 일떠서 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그 모든것을 보고 통천군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지중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지금도 통천군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안고있을 리영근동포와 그의 아들이 새롭게 변모되여가는 이곳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감회가 새로울것이라는 생각이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경치아름다운 시중호기슭에 강원도전쟁로병보양소가 자리잡고있다.

군병원에서

문화회관에서

주체113(2024)년 8월 통천군 명고리에서 새집들이경사가 있었다.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근로자들

김수하

국내자동화공학분야의
권 위 자

내가 키운 제자들의 연구성과가 전해질 때면 나는 못내 흐뭇하고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솟구친다.

그럴수록 과학탐구와 후비육성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마음을 가다듬군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교수 박사 김수하는 지난해 2월 후보원사칭호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학생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김수하선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축하의 인사와 꽃다발을 받고보니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어머니와 함께 귀국선에 오르던 추억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겨 보낸 나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김수하가 태여난 곳은 일본 가나가와현이다. 어린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욕망이 컸던 그였지만 민족적멸시와 차별이 심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한갖 꿈에 불과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그의 새 삶이 시작되였다.

나라에서는 그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시켜주고 소원대로 교단에 세워주었다.

그 은덕에 보답하고저 그는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바쳤다.

1980년대초 조국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완성하였다.

과학연구부문에는 하루빨리 무용표기를 기계적으로 할수 있는 타자기를 개발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새로 개발되는 종합타자기는 무용동작들과 무용도구를 비롯한 모든 무용표기를 동시에 타자할수 있어야 했고 그것을 임의로 수정보충하면서 편성도 할수 있어야 했다. 뿐만아니라 타자기는 수록된 자료들을 기억시켜 보관할수 있고 음악무용총보를 텔렉스로 실현할수 있어야 했다.

이 난도가 높고 방대한 과제를 연구사업년한이 얼마 되지도 않는 애젊은 김수하가 스스로 맡아안았다.

문헌들을 탐독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사색과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현대적인 자모식무용표기타자기를 1년 남짓한 기간에 개발 및 제작한 그는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주체적무용표기법의 전자계산기화(당시)를 실현하여 주체78(1989)년 7월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의 최고상인 WIPO상과 WIPO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나라에서는 그의 과학연구성과를 평가하여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었다.

그럴수록 일본에서라면 막돌처럼 버려졌을 자기를 과학자로 키워준 조국의 은혜에 보답할 일념이 가슴에 꽉 차올랐다.

그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 구장세멘트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등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앞선 나라들의 과학기술문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실정에 맞게 강의에 적용하는 한편 교수방법을 부단히 갱신하였으며 《심층학습과 신경망기술》, 《첨단인공지능과 통합생산체계》 등 수십종의 기술도서와 소론문 130여건을 집필하여 교육사업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하였다.

그 나날 김수하는 40여차의 국제적인 토론회, 과학발표회와 전국적인 발표회, 전시회들에 참가

박사원생들의 론문지도를 하고있는 김수하

주체78(1989)년 7월 세계발명 및 저작소유권기구로부터 김수하가 받은 WIPO상증서와 WIPO금메달

하여 론문, 경험을 발표하였으며 5개의 세계 및 국가발명권과 새 교수방법등록증, 교육과학성과등록증,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 국가새기술등록증, 국가프로그람등록증을 비롯한 많은 등록증과 도입증을 받았다.

그는 20여년간 국가자동화부문심의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사업하면서 3명의 박사와 수십명의 학위소유자들을 양성하였다.

얼마전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지만 지금도 그는 30여년전 자모식무용표기타자기를 개발하던 그 열정으로 과학탐구와 후비육성의 길을 걷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진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 식

개 마 무 사

개마무사란 고구려시기 철갑으로 무장한 사람과 말에 대한 호칭을 두고 말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했고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위훈을 떨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였다. 하여 그들은 무기무장을 잘 갖추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사람뿐 아니라 말에도 갑옷을 입혀 외적과의 싸움에서 앞장서게 하였다.

고구려벽화무덤들인 고국원왕릉, 쌍기둥무덤 등의 벽면에는 마면갑과 말갑옷을 씌운 말에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무사들이 탄것을 그린 그림들이 보인다. 무사들이 입은 갑옷들은 모두 너비 2~3㎝, 길이 3~4㎝의 쇠로 만든 패쪽들을 수많이 련결하여 만들었고 말갑옷은 그보다 좀더 큰 패쪽들을 련결하여 만들었다.

《삼국사기》에는 그런 갑옷을 입힌 말에 탄 기병을 《철기》라고 하였는데 동천왕 20년(246년)조에는 철기 5 000명이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무장장비발전수준으로 볼 때 당시 고구려의 무기무장이 대단히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 * *

잊지 못할 나날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만경대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축하단성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축하단성원들은 여러 관을 돌아보았다.

축하단성원들은 경루동의 살림집과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만경대혁명학원 등을 참관하고 복된 삶을 노래하는 인민의 모습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조국을 보았다고 하면서 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국방문의 하루하루는 잊지 못할 나날의 련속이였다.》

이것은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조국방문기간 조선혁명박물관, 주체음악예술발전관, 만경대혁명학원, 강동종합온실농장,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대동강맥주를 마시며 림흥거리를 부감하였는가 하면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여러가지 아이스크림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동포들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온탕도 하고 온천에서 삶은 닭알도 맛보았으며 경루동에 살림을 편 한 공로자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동포들은 전면적발전을 이룩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친척친우들에게 보여주고싶어 사진들을 찍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중앙통신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한 나는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체류일정을 세심히 관심해주시고 방문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국경절에 즈음하여 하신 연설에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을 가고있는 총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우리 축하단성원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련의 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신 사랑 적으신듯 사랑만 베풀어주시는 그이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가고계신다.

가는 곳마다 새 거리들이 일떠서 인민들은 복된 삶을 노래하고 인민을 위한 새라새로운 공장들이 일떠서 만부하의 동음 높았다.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들에서도 변혁이 일어나고있었다.

정말 조국의 모든 지역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가고있었다.

나는 조국의 모습을 간직하고 일본에 가서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대로 총련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고덕우

동포청년들의 거울

나는 조국을 12번째로 방문한다.

방문의 하루하루가 다 즐거웠다.

특히 화성대동강맥주집에서 새로 일떠선 림흥거리를 부감하며 맥주를 마셨는데 정말 별맛이였다.

대동강맥주가 원료함량과 색, 맛을 비롯한 특성에 따라 1번부터 8번까지로 나누고있다고 해서 다 마셔보려고 했는데 주량이 적어 다섯가지 맥주밖에 맛보지 못했다.

맥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니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산뜻한지 거리의 풍치를 돋구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해하는 늙은이를 도와주는 청년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그 모습을 볼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조국청년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에 서고 정든 수도를 떠나 탄광, 광산, 농촌, 개발지로 탄원해가고있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창조물들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있다.

최근시기에 일떠세운 전위거리가 그 실례라고 볼수 있다.

이런 조국청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우리 총련의 청년들도 어렵고 홀로 사는 동포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그러고보면 조국청년들은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청년들의 거울이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광일

보다 적극화되는 민족유산보호사업

- 민족유산보호국 처장 김성남과 본사기자와의 문답-

김성남(오른쪽)

기자: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지 않는가.

처장: 민족의 력사는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통해 후세에 전해진다.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은 민족유산에 의해서만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해온 력사였다. 이런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발굴복원하며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자: 민족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어떤 정책들을 실시하고있는가.

처장: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있다. 오래전에 문화유적과 유물을 사회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졌으며 해마다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유산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국가에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민족유산보호국을 내오고 중앙과 지방에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지에 있는 물질유산과 자연유산, 비물질유산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고있다.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대상을 정확히 분담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전개하고있다. 그리고 민족유산애호월간에 민족유산보호사업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고있다. 력사유적유물들에 대한 보존관리를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사업도 국가적인 관심속에 적극 추진되고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들과 력사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도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다. 이 과정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유적유물들은 물론 전국각지의 력사유적유물들이 해당 사회와 력사적시기의 특성에 맞게 옛 모습을 보존하고 명산, 명승지, 천연기념물들도 국가가 정한 규정과 절차대로 관리되고있다.

참으로 조국땅 그 어디에나 민족의 넋과 기상이 살아숨쉬고 유구한 문화와 전통이 날을 따라 더욱 찬란히 계승발전되고있는 현실은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기자: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과 열의도 더욱 높아지고있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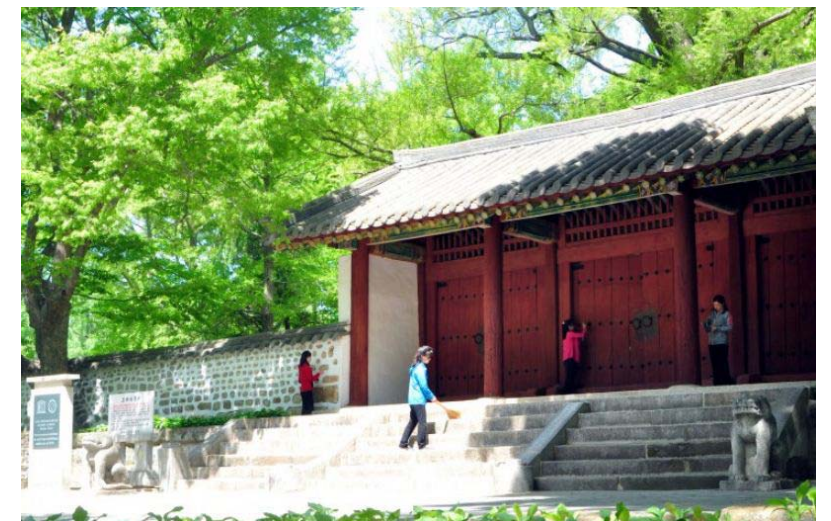
처장: 민족유산보호사업은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진심을 바쳐 스스로 찾아해야 할 애국사업이다.

애국심은 절로 생기지 않는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을수 없고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사람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말살하기 위하여 력사와 문화를 없애버리고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략탈하는 정책을 실시한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기에 정부에서는 온 사회에 민족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풍을 확립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지금 각지 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이 계속 발굴수집되고있다. 주체111(2022)년에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각각 약사여래3존불상과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이, 지난해에는 개성시에서 고려전반기에 제작된 옥불상이 발굴기증된것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민족유산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려는 인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민요 《아리랑》과 김치담그기풍습, 씨름, 《평양랭면풍습》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였고 지난해에 만도 《칠보산전설》과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풍습》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여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였다. 뿐만아니라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민속놀이를 많이 하는 등 인민들속에서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있다.

이렇듯 당과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과 전체 인민들의 드높은 애국열의에 의해 민족유산들은 후손들에게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길이 전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 * *

력사유적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고있는 개성시근로자들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단군릉

시원한 가을바람에 이삭들이 알알이 여물어가는 9월중순 어느날 우리는 단군릉관광길에 올랐다.

평양시 중심구역을 벗어난 관광뻐스는 빨간 사과알들이 땅이 꺼지듯 주렁주렁 달린 과수밭이며 누런 벼이삭들이 설레이는 논벌을 지나 기세좋게 달리였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풍요한 가을의 정서가 안겨오는 차창밖을 바라보던 관광객들속에서 문득 누군가가 《단군릉이 보인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창밖에서는 흰 화강석으로 쌓아올린 독특한 건축형식을 갖춘 단군릉이 우리의 시야에 점점 가까이 다가들었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행이 도착하자 강사 김지향이 우리를 반겨맞았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단군릉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무덤으로서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의 유구성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유적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난 시기 단군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신화적인 존재로만 알려져왔었다.

한것은 그를 첫 건국시조로 신격화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전설이 만들어진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조선사람들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군묘를 도굴하다 못해 력사자료들을 모조리 없애버린데 있었다.

조국의 력사학자들이 주체82(1993)년 2월에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강동군에서 발굴함으로써 단군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의 시점에서 5 011년전에 태여난 실재한 인물이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강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B.C. 30세기초에 세워진 단군조선이 발전된 청동기문화에 기초하여 고대시기에 형성된 문명국이라는것과 대동강문화를 형성시기로 보나 발전수준으로 보나 세계5대문명의 하나로 당당히 꼽을수 있다는것이 명백히 립증되게 되였다는데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며 우리는 릉에 올랐다.

그곳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비의 전체 높이는 8m이며 그 가운데서 비몸의 높이는 4. 6m이고 두께는 1m)와 단군릉수축비(비의 높이는 1. 91m, 너비는 0. 5m, 두께는 0. 39m), 돌계단 좌우에 단군의 아들과 측근신하들을 형상한 돌조각상들이 서있었다.

먼저 단군릉개건기념비앞에서 걸음을 멈춘 강사는 관광객들을 향하여 원래 단군의 묘가 어디에 위치하고있었는지 아시는분이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한 남성이 강동읍에 있었다고 자기의 유식을 뽐내

단군릉개건기념비

무덤칸의 내부

듯이 대답하였다.

그의 말을 긍정하여주며 강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82(1993)년 9월 27일 80고령의 몸으로 강동땅을 찾으시여 앞이 훤히 트인 이 대박산기슭의 야산마루우에 새로 개건하게 될 단군릉터를 잡아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후 단군릉복구위원회가 무어졌으며 릉건설에 막대한 자재와 설비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여 릉은 짧은 기간에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섰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단군릉개건기념비의 헌시를 한자한자 읽어본 관광객들은 이어 단군릉수축비와 돌조각상들을 돌아보고 릉의 기단우에 다달았다.

이때 모란봉구역 전승1동에서 온 박종혁부부가 강사에게 이 돌무덤무지가 모두 몇개의 단으로 되여있는가고 물었다.

강사는 무덤무지의 밑변 한변의 길이는 50m이고 높이는 22m인데 크게 9단으로 되였고 매개의 단은 다시 3개의 단으로 나누어 조금씩 차례줄임하였다고 하면서 무덤무지를 돌로 계단을 지어 9층으로 쌓은것은 우리 선조들이 고대와 그 이후시기에 무덤을 돌로 만들거나 여러개의 계단을 지어 쌓았던 전례를 살린것이며 9라는 수자를 가장 높고 상서로운 수로 여겨온 관례에 따른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문기둥

다음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무덤무지의 뒤문(북쪽)을 거쳐 무덤칸벽까지 곧게 낸 복도를 지나 무덤칸앞(남쪽)의 문을 통과하였다.

무덤칸에 들어서니 널직한 그곳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있는 관이 각각 놓여있었으며 마주보이는 앞벽에는 단군화상도 걸려져있었다.

맏아들 부루

둘째아들 부소

셋째아들 부우

넷째아들 부여

단군릉에 대한 참관일정이 끝나갈무렵 우리의 귀가에는 근대의 력사학자이며 이름난 작가였던 신채호가 남긴 글이 상기되였다.

《오직 력사를 통해 2천만의 귀에 애국이라는 소리가 쟁쟁히 울리도록 하고 2천만의 눈에 나라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게 하며 2천만의 손이 나라를 위하여 바쁘게 놀도록 할수 있다.》

신채호선생이 오늘의 이 릉을 보았더라면 어떤 글을 남겼을것인가. 아마도 아무리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지닌 민족이라고 하여도 오직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만 그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빛내일수 있게 된다는 뜻을 담았을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음참관지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신충일

조국에서는 해마다 개천절(10월 3일)을 맞으며 단군제를 지내고있다.

단군릉을 찾은 참관자들

메주장과 그 풍미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처마밑에 메주를 달아놓아 띄우기를 하였다.

지난 호 《민족의 향기》란에 《고려된장술》을 소개한 후 저는 며칠동안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중국에 사는 동포들은 메주와 조선토장맛에 대해 충분히 아시겠지만 로씨야에서 나서자란 새세대 동포청년들은 메주며 토장을 전혀 모를수도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품을 놓고 메주에 대한 소개를 꼭 한페지 펼쳐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럼 먼저 메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메주란 찐 낟알 또는 낟알가루에 메주종균을 섞어 균을 자래운 장의 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은 단백질, 농마, 소금같은것을 원료로 하여 만든 발효가공품으로서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입니다.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발효원리를 리용하여 자기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김치, 된장, 막걸리와 같은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메주를 만들어 장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것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민이 삼국시기에 장을 먹었다는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메주를 만들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습니다.

초기에 장은 삶은 콩을 벼짚으로 싸서 더운 구들에서 띄운 다음 소금과 섞어 그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의 가정들에서 적용한 재래식메주제조방법에서는 콩을 쪄서 짓이긴 다음 덩이로 만들어 자연적으로 메주균이 자라도록 하였다면 오늘에는 식료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밀쌀, 타갠 강냉이 등을 찐것에 메주균을 심어 짧은 기간에 균이 자라도록 하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은 아마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는다》는 속담이 귀에 설지 않을것입니다.

조선사람들이 즐겨 쓰는 이 속담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메주는 반드시 콩으로만 쑤는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동포여러분은 장을 담그는 메주는 콩만이 아니라 밀, 보리 등과 같은 다른 낟알로도 만들수 있다는것을 꼭 알고넘어가야 할것입니다.

민족전통식료품 메주장은 공업적방법으로도 생산되고있다.
- 대동강식료공장에서 -

이렇게 삶은 낟알을 짓이겨 덩이로 빚은것을 겨우내 뜨뜻한 방안에 걸어놓고 푹 띄웁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그것을 보드랍게 갈아 덧밥(된장을 담글 때 메주에 섞어주는 찐밥)과 소금을 섞어 발효, 숙성시키는데 바로 이것이 조선토장으로 불리우고있는 메주장 즉 된장입니다.

농마와 단백질이 들어있는 덧밥을 메주에 버무리고 여기에 소금을 섞어 익히면 메주의 효소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장맛이 들게 됩니다. 흔히 덧밥은 깨끗이 처리한 낟알가루에 40%안팎의 물기를 주고 쪄서 만드는데 덧밥을 쓰는 량은 메주질량의 절반가량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은 메주장을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기초적인 식료품의 하나로 여기고있습니다.

메주장은 직접 반찬으로 하거나 그것을 여러가지 음식물의 맛을 돋구는 양념감으로 리용할수 있습니다.

메주장에는 입맛을 돋구는 여러가지 물질들이 잘 조화되여 들어있기때문에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메주장의 색갈은 대체로 노란밤색 또는 붉은밤색을 띠고있습니다.

메주장의 조성은 원료의 종류와 그의 섞음비률, 익힘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수분 44~55%, 단백질 10~20%, 지방질 1.5~8%, 당분 4~15%, 염분 6~16%, 조섬유 2~4%가 들어있습니다.

메주장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섭취하여야 할 필수아미노산들인 리진, 트립토판, 메티오닌, 아르기닌, 페닐알라닌, 이소로이신 등이 들어있으며 농마, 덱스트린, 길금당, 포도당 등의 당질과 비타민B_1, B_2 등도 들어있습니다. 토장에 들어있는 리놀산, 레시틴들은 동맥경화증, 심장질병을 미리막는 역할도 합니다.

토장국은 우리 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찾는 인기있는 건강식품의 하나이다.

식료공업이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조국의 많은 가정들에서는 안주인의 손으로 메주를 쑤어 토장을 담그어먹고있습니다.

겨우내 가정들에 메주덩어리를 걸어두고있는 조선민족특유의 풍경은 참으로 이채롭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조선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온 장을 담그는 방법과 기술, 그와 관련한 관습인 장담그기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4호로 등록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래되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함께 발전하여온 전통적인 식료품인 메주장은 세계적으로도 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려해
사진 본사기자 리철

상 식

항암 및 발암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식료품

- 된장

된장에는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타민과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된장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위암을 발생시킨다.

- 김치

배추를 비롯한 신선한 남새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전위선암발생률을 낮추고 전위선암조기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김치발효과정에 나타나는 생리활성물질들과 젖산균은 대장암예방에 좋다.

그러나 이러한 김치는 소금함량이 초과될 때 암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김치는 될수록 싱겁게 담그어먹어야 한다.

* * *

평양의 유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도시인 평양은 조국의 수도이다.

《평양》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력사책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부터이다. 여기에는 《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또는 왕의 도읍인 왕검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여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왕검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이른 말이며 그가 도읍하였던 성이라고 하여 평양을 왕검성으로 불렀다.

력사가들은 평양의 지명유래를 원래 우리 민족의 력사적이며 전통적인 이름인 부루나에서 유래되였다고도 해석하고있다.

부루나는 큰 성시나 수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옛날말로서 넓은 평양벌을 끼고있는 지역적특성을 담고있다.

고구려초기부터 평양을 《부루나》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7세기말이후 우리 말에 한자말이 생겨나고 한문이 글말로 쓰이게 되면서 《평양》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고려시기에는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였다. 평양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하여 나라의 서쪽지역에 있는 수도라는 뜻에서 《서경》이라고 이름을 고치면서 그 의의를 크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당시 수도였던 개경(개성)에 못지 않게 큰 규모로 꾸렸다.

고려말기에는 서경을 평양부로 고쳤다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평양으로 불러오고있다.

해방후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여 주체35(1946)년에 평양은 특별시로 되고 4개의 구로 나뉘게 되였다.

주체41(1952)년에 구가 구역으로 개편되였으며 그 이후 구역들의 행정구역이 변동되고 평양시령역이 넓어지면서 일부 구역이 늘어나고 주변군들이 평양시에 편입되였다.

*　　*　　*

장기수풀이 (22)

장기격언

무차에 유마필승

량측에 차가 없는 경우 말이 마감결속에서 기본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흔히 차가 없을 때 말의 위력을 두고 《호랑이 없을 때 삵이 왕노릇한다》라는 속담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수풀이 (21)에 대한 답

ㄴ8차ㄴ5, ㄷ7말ㄴ5, ㄴ1차ㄴ4, ㄷ2말ㄴ4, ㄹ5병ㄹ4, ㅅ2상ㄹ4, ㅇ5상ㅁ7, ㅅ6차ㅁ6, ㄱ9포ㄱ4, ㄴ4말ㄷ2, ㄱ4포ㄷ6, 장훈

진 북 루

진북루는 갑산읍성의 정남문이다.

이전에 허천부로 불리우던 갑산지방에는 고려(918년-1392년)말기에 갑주만호부가 설치되고 1393년 이곳에 성을 쌓았다.

갑산읍성에는 진북루외에 북승루, 양상정, 합구정 등 성문들과 정원루, 이락정, 영보대, 수항문루 등 루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진북루가 제일 웅장하였다고 력사기록은 전하고있다.

진북루는 여기에 진이 설치되던 해인 1437년에 크게 보수한 일이 있는데 지난 조선전쟁(1950년-1953년)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주체69(1980)년에 진북루를 원상대로 복구하였다.

진북루는 검푸른 용암으로 쌓은 축대와 위용있는 2층문루로 이루어졌다. 축대는 평면상 안우리를 주어 그 견고성을 높이였으며 복판에 반원형무지개문을 냈다. 우에 돌린 평가퀴에는 활을 쏠수 있는 구멍들을 냈다.

문루안 1층에는 가운데간 북쪽에만 마루를 깔고 2층에는 전면에 걸쳐 마루를 깔았으며 천정은 소란반자천정이다. 문루에서는 측보를 겸한 룡조각이 품위있게 되였다. 룡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측보가 되고 룡의 대가리는 대들보를 타고 넘으면서 그대로 돌출된 조각장식으로 되였다.

문루에는 검소한 모루단청을 입혔다.

진북루는 개성남대문보다 더 일찍 건설된것으로서 14~15세기 성문건축의 여러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있으며 오늘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　　*　　*

1층 내부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flph@star-co.net.kp

뒤표지：신평금강의 노은폭포/김혁주

ㄱ-24088021923